

'광주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맡은 인재진씨

## "3~4년 기초 닦아亞 대표 페스티벌 만들겠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전국의 음악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축제 중 하나다. 이 축제가 열리는 곳은 재즈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인구 5만 8000여명의 시골마을 '가평군'. 1억 5000만원으로 치른 첫 해 행사에는 2만 5000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에는 1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제를 즐겼고, 예산도 1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자라섬을 찾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15개국 30팀 참가 8월 27일 열려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재진(47·사)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씨)이 광주에서 또 한번의 도전에 나선다.

인감독은 오는 8월 27일~29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월드뮤직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주진단이 주최하는 '월드뮤직페스티벌'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중요 콘텐츠가 될 행사로 15개국 30팀이 참여한다.

'월드뮤직'은 인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자국

의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팝,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통해 보편성을 획득한 장르"로 '부에나 비스타 소설 클럽' 등을 통해 우리 나라에 많이 알려졌다.

"본격적인 '월드 뮤직'을 표방하는 축제는 광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첫 시작이라 부담도 많죠. 3~4년 토대를 닦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페스티벌로 만들고 싶습니다. 서구 중심의 음악시장에 아시아 음악을 알리는 창구 역할도 해야죠. 축제가 성공하려면 콘텐츠, 먹을거리, 편의시설, 행사의 연속성, 조직의 항구성 등 5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합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인감독은 이날 그레미상 후보에도 올랐던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 이타마리 쿠락스, 퓨전 플라멩코 밴드 '할로오' 등 월드뮤직페스티벌의 1차 라인업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월드뮤직이 아직 본격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진을 섭외하는 데 대중적인 요소와예술성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금 무모할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콘텐츠는 통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특히 음악이라는 장르는

어떤 장르보다도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인감독은 지역 음악인들과의 교류도 강조했다. "행사를 앞두고 꾸준히 지역 음악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올해는 지역 뮤지션들은 사작곡 공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에요. 행사를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 지역분들이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작업을 많이 접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저희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역 음악인 만나 아이디어 공유"

월드뮤직페스티벌은 당초 아시아문화전당 앞을 메인 무대로 활용하고 금남공원, 사작골 통기타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금남로 지하상가 붕괴 사고로 메인 공연장을 풍암동 체육공원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중이다.

현재 상명대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인감독은 파트리샤 카스 내한공연, 하이서울 음악감독 등 1000여회 이상의 재즈·월드뮤직 공연을 기획했으며 나윤선씨의 음반 프로듀서로 맡고 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 범죄 발생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광주 안실련 대표 맡은 인광병원 박인수 이사장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여부가 그 사회 삶의 질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어린 시절부터 안전

성폭행과 같은 반인류 범죄가 늘고 있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광주안실련 어머니회가 주축이 돼 어린이 관련 범죄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에 대한 교육·홍보는 물론 자체적인 활동도 강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안실련은 광주 시민들의 안전의식 생활화와 생명존중의 가치 확립을 목표로 지난 1997년 설립됐다. 이 단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카네기, 롤펠러 재단처럼 단체의 목표를 국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공익형의 압력단체를 지향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에 대한 의식을 둘로 디자인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최근 어린이 성추행·

## 딸 돌잔치 축의금 600만원 복지시설 기부

광주 출신 한성식씨



광주 출신의 30대 사업가가 딸의 돌잔치에서 손님들이 낸 축의금을 아동복지단체에 전액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남구 송하동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인 신애원에 따르면 한성식(39·원 쪽)씨는 지난 12일 북구 유

동 리더스클럽 연회장에서 연 자신의 딸 우립(1·기운데)의 돌잔치에서 손님들이 낸 축의금 600여만원을 받아 신애원에 기부했다.

한씨는 신애원에 요청해서 축의금을 낸 손님에게 돌잔치 현장에서 즉석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도 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씨는 "내가 어릴 적부터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 때문에 우리 딸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해서 첫 생일을 기념해 기부에 나섰다"며 "딸의 이름도 도울 우(佑)자를 써서 우립이라고 지었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신애원과의 특별한 사연도 있

었다. 한씨가 청소년 시절 집에서 가출하는 등 방황하던 때 친한 선배의 도움으로 신애원에서 한 달 가량 자녀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신애원에서 지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방황을 끝내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

한씨는 "범죄의 길로 빠질뻔한 나를 구해준 건 신애원의 사람들이다"며 "그 이후 봉사하는 삶을 살며 사업가로 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현재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아내와 딸은 광주에서 지내고 있다.

"온 가족이 행복한 기부를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기부문화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인사

####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의과대학장 문경래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의과대학부부장 김진호

### 내방

▲임내현(변호사)씨 ▲양성철(광주지방경찰청장)씨 ▲김성준(인피니티 대표)씨

## 익명 독지가 화순 노인회 200만원 성금

익명의 독지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회장 조백환)에 2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6일 화순군지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한 청년이 조 회장을 찾아와 심부름을 왔다며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5만원권 지폐 40장과 함께 '어렵고 힘든 노인들을 위해 써

주십시오'라고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조백환 회장은 "얼굴 없는 전사"의 선행에 감사의 말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를ညم 연락처도 알 수가 없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불우이웃을 위해 쓰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함수남(전 고려고 교장)·오옥선씨 차남 동일군 김윤석·김영례씨 차녀 경미양=20일(일) 오전 11시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아도니스)

### 동창·동문회

####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동문회(장 김운기)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동구 계립동 계립수산회관

장: 010-611-2858.

#### ▲살레시오여고등학교 17회 모교방문의 날=19일(토) 오후 6시 무등파크호텔 4층(다이아몬드 풀)

장: 062-363-0442~3.

### 모집

####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 = 광주시에 거주하는

신인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 국비지원 가정방문 노인도우미 이용자모집=혼자선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집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062-385-3678.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경. 010-

3608-1060.

▲사단법인 해사랑넷 봉사단=봉

교예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문화 한글과정 지원봉사 여교

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정모집고시반 등 월~

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

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

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

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집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

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호자

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 모집.

062-351-1206.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시며 30

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경. 010-

602-2278.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도서처제조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후 10시~1시, 강사·시인·아동문학·심리상담

지도사 김성구 박사, 문의 평생교육원

(062-670-2167, 2168).

▲광주시 생활체육이구연합회 사

회원 애구팀 '엑스칼리버' 팀원 모집

=애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

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0-609-9943, 010-2611-7787.

▲맘보퓨엔터 살아동회회원

수시모집=총장로 3가 총과 앞 더반

디샵 지하, 라틴댄스·살아·차차 등.

010-513-0028.

주시지부 베트남 친전 전우·회원 수

시모집=서구지회(010-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 수시모집=페리글리너, 헬글라이더, 원드서핑 등. 062-675-8722.

▲백운선 다이빙클럽 회원 수시

모집=잠수교육, 스키스쿠버다이

빙. 062-671-9918.

▲활실 심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